

환경과 기업 경영

노용희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얼마 전에 경기도의 집중 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재민이 되었고,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복구가 시작되면서 수도물을 다시 쓰게 되었고, 물에 잠겼던 가재 도구를 씻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물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수재민들이 가재 도구를 수업을 이용해 물을 확확 뿌려가며 청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결국, 물로 고생한 사람들도 그 귀한 물을 마구 쓰는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탄강에서는 기업체들의 폐기물 방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수재민들이 청소하는 장면은 “물은 얼마든지 있다” 즉, ‘환경재는 자유재’라는 몸에 밴 평소 생활 습성의 표현이었고, 기업체가 비오는 틈을 타서 독성 폐기물을 내보낸 것은 자연의 정확력·자정력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로 몹시 시끄럽습니다만,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과 생산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방식을 쓰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교란당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서구화를 목표로 해서 이른바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NP 1만 달러를 구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만, 1만 달러의 의미를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1만 달러에는 좋은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날수록 GNP는 늘어납니다. 즉, 자동차 메이커는 차를 더 팔 수 있고, 교통 사고 부상자들이 병원, 보도하는 신문 기자, 현장 조사 경찰관, 심지어 사고 소송 담당 변호사 등을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없을 때에 비해 GNP

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stock이 별로 없는데 flow 면만을 따지는 형태의 GNP 양이 증가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OECD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서구 문명이 인류의 진로를 좌우해왔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그들의 생각·행동·생활을 목표로 삼아 어느 정도 추종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의 발상으로 20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은 21세기를 살기에 적합치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20세기를 경제의 세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가치의 척도가 이제 경제에서 환경의 질로 바뀔을 뜻합니다.

지구 환경 인식의 역사

지구 환경 문제의 인식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2차대전 후인 5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화가 파격적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어떤 특정 공장, 공단 굴뚝의 매연이나 하수도의 폐수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공해 측면에서만 거론되던 환경 문제가 완전히 지구 규모로 바뀌게 된 것은 2,30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이라는 여성이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벌·나비가 날아오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새가 날아와 봄의 숲은 요란한 새소리로 채워져야 하는데, 농약의 독극성이 먹이 사슬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 봄이 와도 숲은 조용하다는 농약을 고발한 책입니다. 주로 DDT가 고발의 대상이었습니다. DDT는 1970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디만, 원래는 2차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즉,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날씨가 인해 D-day가 자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군대 내에 이가 퍼져 발진티푸스가 발병하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미올라가 만든 이 제품을 공수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DDT는 군수품에서 해제되어 민간에게 보급되면서, 사람과 가축은 절대 해치지 않고 해로운 것만 죽인다고 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어 대량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난분해성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의 자정력이 미치지 못했고, 우리가 쓰고 버리면 바람을 타고 멀리도 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은 인체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70년대 미국 연방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 어머니 모유 속에 함유되어 있던 DDT의 양이 연방정부가 낙농 제품에 허용하는 기준치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와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른바 공해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무렵 스웨덴에서도 독수리나 매가 자꾸 죽었는데, 과학자들이 해부해 보니 수은 중독이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독수리나 매의 먹이가 부엉이고, 부엉이의 먹이가 콩인데, 콩에 뿌려던 수은제 농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시키는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화학협회는 카슨의 「침묵의 봄」이 나왔을 때까지도 그 정보를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농약협회도 사무국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체에 수은 소독제가 해롭지 않다.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스푼으로 먹어 보이겠다”는 식으로 정부로 하여금 결단을 못 내리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것은 농약 함유량이 많다는 클레임때문에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17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던 스웨덴의 산림도 자꾸 죽고, 호수가 산성화 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자국 공장의 굴뚝에서 나온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니었고, 영국이나 대륙 국가에서 날라온 오염된 공기라는 사실이 밝혀져,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오늘날 스톡홀름에 가보면 모기나 파리가 없어 굉장히 살기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만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산성화되어 애벌

레가 자랄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1972년에 스웨덴이 앞장서서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인간환경회의’를 스톡홀름에서 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국제 사회는 ‘주의(ism)’를 중심으로 동서로, 부유 여부를 놓고 남북으로 사분 오열되었던 차제였습니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 특히, 구소련 같은 나라는 ‘인간환경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해 문제는 독점자본주의 국가에서 악덕 재벌 기업들이 사적 비용을 사회 비용으로 돌린 문제인데, 악덕 재벌도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는 공해가 없다고 해서 구소련은 참여하지 않고 122개 나라가 모여 인간 환경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과 제3세계는 “환경 문제는 부유한 공업 국가들이 저질러 놓은 일인데, 국제 회의에서 모두 같이 책임지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업화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반발이 나왔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이른바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선언의 중요 골자는 “환경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당연한 인권의 하나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누구보다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고, 생태적 개발(echo development)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개발을 어떻게 자제해야 되고, 개발이 자연에 주는 충격의 크기가 자연의 자정력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인위적으로 그걸 보완해주는 기술적·시간적·경제적인 한도까지의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소위 환경 용량 (environmental capacity)을 따져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제일 큰 성과는 역시 UNEP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환경 계획(Environmental Program)을 만들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1982년에 UNEP 창설 10주년 기념 행사를 나이로비에서 할 때, 또 새로운 특별위원회인 '환경개발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Development: WCED)'를 만들어 노르웨이의 브룬트 란트 여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향후 인류의 개발 방법에 대해 연구하게 해서,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는 「브룬트 란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속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개발은 ESSD를 따르자는 제안이 국제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리우 선언'

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실천을 위해 같이 채택된 것이 'Agenda 21'입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는 대립·모순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세우면 다른 한 쪽이 죽는 trade-off 관계로 생각해왔었는데, 이제는 환경도 살고 성장도 가능한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Sustainability)이란 말이 모든 분야의 학문 속에 받아들여져서, 요즘은 아마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행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우회의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 UN은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우리도 지난해까지 이 사국이었음)하고 ESSD적인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봤습니다. 결국, 환경 문제에서 제일 큰 것은 공업 선진국들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만약 현재 중국의 12억 명, 인도의 8억 명, 총 20억 명의 인구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준만큼 생활한다고 했을 때, 생태계는 지속될 수 없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서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남북 문제는 스톡홀름회의 때나 리우회의 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것으로 낙착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보다는 개발이 앞서기 때문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연 경관도 상품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처음 빌려준 자금은 전부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업화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전에는 못 도와준다는 결정이 났습니다만, 개도국의 소위 세 가지 문제인 인구·가난·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업화를 저지할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들이 개발과 보존, 경제와 환경이 통합적인 개념임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서구 문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은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에 입각해 있습니다. 중간을 다 배제해버리고 A와 非A로 나누어서 분석·체계화시키기 때문에, 개발이면 개발, 보존이면 보존, 경제면 경제, 환경이면 환경이지 이것을 통합하여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서구인들의 자연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의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에게 봉사시키는 존재로 생각하여, 뉴턴과 데카르트 후에 발달되어온 과학의 힘을 통해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개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연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차등 의식을 갖게 하여 서구 문명에 어긋나는 다른 민족·나라의 문명은 열등하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정복당하고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9세기까지 300~4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은 전세계를 식민지로 만드는 패

권주의를 행사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안되었던 나라들은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개척 정신은 원주민인 인디언을 학살하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원주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히려 착각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가치관의 일부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형태가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 사관입니다. 5,000만 명 이상을 반혁명으로 몰아 살상하고도 뜻을 못 이룬 마르크스의 사관은 바로 차등주의·계급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도, 문명도 차등화했던 것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

오늘날 서구식 자연관이 몰고온 지구 환경 문제는 많습니다. 우선,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30년대에 만든 화학 물질로는 가장 효율성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프레온 가스(CFC)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안정된 분자 구조때문에, 이것이 상층권 밖의 오존층에 도달해서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는 자외선과 결합, 화학 작용을 일으켜 구멍을 냈고, 지금은 처음으로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생겨 오세아니아주 백인들 사이에 피부암·백내장이 늘고, 플랑크톤이

죽는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둘째,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주 에너지는 화석 연료였습니다. 사실 화석 연료라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말라야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을 숲의 문화, 서쪽을 초원 문화 내지 사막의 문화라고 합니다. 12세기까지 사람들이 숲을 다 완전히 없애버려 자연이 황량해졌고, 자연과 투쟁하는 정복형 가치관이 형성되어 오늘날 자연을 사멸시키는 문명이 된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숲을 다 정복한 후에 땅 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석탄이 되었던 석유가 되었던 사용 후 CO₂가 생깁니다. CO₂가 가스층을 점점 두껍게 하여 지구의 온도를 높임에 따라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2050년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사막화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산성비를 만들어 숲을 죽이고 호수를 산성화시켜서, 이들 속에 사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는 급작스런 도시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1972년에 로마 클럽이 낸 「성장의 한계」라는 제1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공업화 추진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인구의 증가와 오염의 지속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지구 상에서 인류의 성장은 100 년밖에 안 남았다는 매우 비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자원낙관론자들은 그 문제를 기술 개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구 환경 문제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ESSD식 사고 방식도 말하자면 '인간중심주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심원한 생태학(deep ecology) 운동'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이나 대응책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얕은 운동이고 이제는 심원한 생태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편익, 수익성, 무슨 기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그걸 함부로 파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신문에 자주 나는 'Green Peace' 같은 것도 그런 스타일의 아류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생명체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생명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더라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물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자세

생명체 중심의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1992년에 창설된 '개발 지속 가능한 기업인 선언'을 낸 BCSD(Business Council for Sustained Develop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세웠던 개념은 효율성을 따질 때 경제적인 효율성만 또는 환경적인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양자를 겸할 수 있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평가(life cycle assessment)'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체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전생애를 책임지는 것으로서, 원자재, 제품 공정, 유통 과정, 폐기 단계까지 제품의 모든 생애를 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환경 친화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생활 양식을 바꿔서 생산자로부터 하여금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물건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낭비를 버리고 재활용(recycling)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사용한 수요를 줄이는 유일한 시책은 가족계획제도를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외의 수요는 당연한 걸로 보고 공급 측면의 투자 예산을 책정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해서 종말 처리장을 만들거나, 매립지를 조성·매

립하는 식의 투자를 하고 있지 근본적인 사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전 대응으로서는 소비자 생활 양식의 변화 즉, 가치관의 변화인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난 후 높아진 소비 수준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비 위주'에서 '재활용'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서, 구소련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소련과 수교되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상점에서 펄스콜라를 사기 위해 1달러를 내니 종이컵으로 4잔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것을 마시고 쓰레기 통에 넣었는데, 얼마 후에 다 집어가고 없었습니다. 또 모스크바 근교의 20년대에 지은 집단농장 주택의 화장실 휴지는 깨끗하게 잘라 놓은 신문지와 백화점의 포장지였습니다.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빈곤한 자와 부유한 자의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착각, 위생적인 것과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노이로제 등이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먹다 버리는 식품 쓰레기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처럼, 재생 가능한 원료를 80~90%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원료 자체를 환원 가능하게 만들거나 자기네가 회수해가는 제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생활의 질과 관련없는 경제의 양적인 팽창은 조만간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 불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렇게 편의 중심을 추구하다가 한탄 강에 죽어 떠 있는 물고기 모양으로 인류가 지구 상에서 생존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종말론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소비 양식과 생산 양식을 지속해나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소위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만, 이것을 크게 문명사적으로 보면 지금 서구 문명이 물러가고 동양 문명이 대두되는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원론적 사고 방식의 서구 문명이 해결하기 힘든 환경과 경제 문제의 통합은 동양적인 사상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맺음말

여러분들이 환경 파괴의 피고석에 앉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그룹이 다기화 되어 있고 종사하는 업종이 많지만,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WTO가 내세울지 모르는 무역 장벽 가운데 하나가 환경 규제일 것입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ISO 14000 시리즈는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을 표준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도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의 환경 업체 지정은 공해 방지 시설을 얼마만큼 설치·가동했느냐로 했지만, 이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산 기술과 에너지 및 원자재를 덜 쓰는 기술을 개발하고, 유통 폐기 단계까지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업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쓰는 것이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환경은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컨대, 환경 투자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으면, 기업 경영에 환경 개념을 더욱 집어 넣어야 합니다. ■